

하늘사랑 7

2018. July

www.kma.go.kr Vol. 445

정책 클로즈업

올해 6월부터 지진 서비스가
달라졌어요

열린마당

보다 나은 예보관 교육을 향해

날씨 + 일상

제주의 어떤 여름날



기상청

청년 동행 카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외국인 제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15~34세 청년 근로자

* 중견기업 재직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접수순으로 교통비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버스·지하철·택시·주유비에 월 5만 원 한도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체크, 신용/BC, 신한카드) 발급

신청 방법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단관리기관에 신청→산단공 심사 후 개별 통보→카드 신청→발급 후 사용
온라인 | 관리기관별 담당자 메일 접수 [오프라인](#) |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자체(시·군·구)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4335-2311~2325)*카드사 콜센터는 별도 공지 예정
상세 내용은 공단 블로그를 통해 확인 (blog.naver.com/kicox1964)



하늘사랑

2018 July Vol. 445

2018년 7월호(통권 445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8년 7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남재철 편집장 김현경 편집기획 윤기환 최의수 조희애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정책 클로즈업

올해 6월부터 지진 서비스가 달라졌어요 · 02

포커스

전주기상지청 100년, 그리고 새로운 도약 · 04

해외동향

살인더위 피해, 갈수록 심각해져 · 06

아마존 열대우림, 온실가스로 말라간다 · 07

KMA 날씨 +

날씨 + Book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20

날씨 + Travel 한 편의 동화 같았던

우리의 신혼여행 · 22

날씨 + 일상 제주의 어떤 여름날 · 24

날씨 + 영화 공포의 날씨 · 26

KMA About

열린마당

기상위성, 너는 내 운명 · 08

보다 나은 예보관 교육을 향해 · 10

라하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 12

물속에서 느낀 자유로움, 프리다이빙 · 14

낮선 곳을 여행하는 마음 · 16

푸퐁푸퐁 타이완~! · 18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독자 마당 · 30

포토 에세이 · 32



July



5



15



25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올해 6월부터 지진 서비스가 달라졌어요

지진정보기술팀



기상청은 올해 6월 4일부터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에 진도 4 이상의 진동영향을 미치는 국외지진에 대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난 발생 상황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상청의 노력! 함께 살펴볼까요?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재난문자서비스(Cell Broadcasting Service)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CBS는 기지국 단위의 휴대폰 방송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재난문자서비스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폰의 CBS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기지국이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불특정 휴대폰 소지자에게 재난정보를 동시에 전송하는 대국민 공익 서비스입니다.

기상청 재난문자 시스템 → 이동통신사로 재난문자 직접 전송!

그동안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발송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 · KT · 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합니다. 기상청 직접 발송으로 재난문자 전송 단계가 축소되어 문자 전달 소요시간도 1~5초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G 휴대폰의 경우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불가능하여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며, 차후 전송 단계 및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2018년 6월 4일 이후 기상청은 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해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국민행동요령’이 담긴 재난문자!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이 재난문자에 포함됩니다. ‘국민행동요령’에는 기존의 지진 재난문자가 제공했던 지진의 발생시각, 위치, 규모 위주의 정보에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주의사항’, ‘대피 방법’ 등이 추가됩니다. ‘국민행동요령’은 현재 2G-60자, 4G-90자로 제한된 문자 길이 내에서 행동요령을 최대한 요약하여 전달하며, 앞으로 5G에서는 재난문자 길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4G폰 (90자)

[기상청] ○월 ○일
○○:○○시 ○○구
북서구 ○○km 지
역 규모 0.0 지진
발생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
하여 여진 주의

2G폰 (60자)

[기상청] ○월 ○일
○○:○○시 ○○구
북서구 ○○km 지
역 규모 0.0 지진 발생
낙하물 유의,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

또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함께 전달합니다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강제 전송!

그동안 기상청은 규모 3.0 이상의 국내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재난으로 재난문자를 전송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으로 분류하여 재난문자를 전송합니다! 또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난문자 수신 설정 여부에 상관없이 지진 재난문자가 강제 전송되도록 개선했습니다.

※ 단, '16년 이후 출시 단말기에 한해 강제 전송(위급재난)이 가능하며,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긴급재난문자로 수신 가능합니다.



국외지진 조기경보 시범서비스 실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하면 조금 더 빨라진 지진 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난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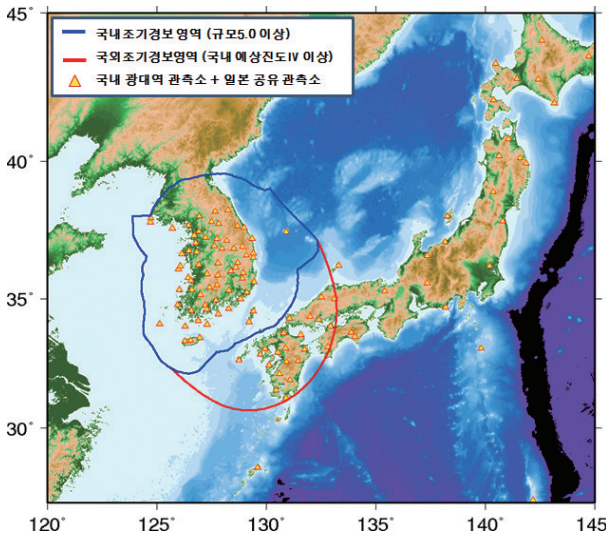
답은 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6년 4월 16일 발생한 규모 7.3의 일본 구마모토 지진은 국내에 진도 IV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도 규모나 발생 위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국내 지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0 이상)이 우리나라에 예상진도 IV 이상의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때도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외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은 국내 영향 가능성이 높고, 실시간 관측자료 확보가 가능한 일본 규슈 지역 일대를 포함합니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로 발표된 지진정보는 언론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기상청 홈페이지(www.weather.go.kr), 기상청 지진정보 트위터(twitter.com/KMA_earthquake)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과 국외지진 조기경보 시범 서비스 운영으로 지진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외지진 조기경보 대상영역 및 관측지점 현황



전주기상지청 100년, 그리고 새로운 도약

전주기상지청

전주기상지청은 1918년 5월 전주관측소로 설립된 이후, 1918년 6월 23일부터 기상관측을 개시하여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부산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등에 이어 7번째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전주기상지청의 과거와 새로운 시작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주기상지청의 100년 역사

전주기상지청은 1918년 전주관측소로 설립된 이후 1918년 6월 23일부터 관측을 시작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후부터는 전국 14개 측후소에서 기상업무를 수행했으며, 전주는 1949년 12월 16일자로 국립중앙관상대 전주측후소로 개칭되어 업무를 수행했다. 1970년 7월 18일 지방조직이 개편되어 중앙관상대 광주지대 전주측후소로 개칭되었고 이후 고창, 무주, 진안, 정읍, 부안, 임실, 남원, 이리 분실이 신설되었다.

1982년 1월 1일 중앙관상대 지대를 지방기상대로 변경하면서 광주지방기상대 전주측후소로 개칭하였고, 1992년 3월 전주기상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08년 10월 직제개정이 되면서 특·정보 관서로 승격되었고, 2015년 7월 기상청 2차 조직개편 이후 전주기상지청으로 정식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전북지역의 예·특보 업무 등을 수행 중이다.



전주기상지청 100주년 기념식

전주기상지청은 올해 맞이한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전주 라마다 호텔에서 '전주기상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기념식에는 김규일 전주기상지청장 및 주요 관계기관장, 퇴직하신 선배님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언론과 관계기관 등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기상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포상했으며, '전주 100주년 사계절의 기후변화 영상' 상영 및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멋진 대금 연주를 들으며 전주기상지청 100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100주년 기념식과 연계하여 기상·기후사진전과 기상역사기록물 공모전 수상작도 함께 전시했다. 아울러 전주기상지청은 '전주기상지청 100주년 기념 우표'를 제작해 참석자에게 증정하고, 기상청 각 기관에도 배부하여 전주기상 100주년을 널리 알렸다.

전주기상관측 100주년 기념 표지석 제막식

전주기상지청은 1918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관측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전주기상지청은 전주기상관측 100년 역사의 지리적인 보존을 위해, 전주기상지청 옛터(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서 '전주기상관측 100주년 기념 표지석 제막식'을 6월 14일에 개최하였다. 이번 제막식에는 남재철 기상청장을 비롯해 전준모 광주지방기상청장, 김규일 전주기상지청장 등 주요 내빈과 전주기상지청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다. 이 자리를 통해 전주기상관측 10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주기상지청이 더욱 발전하는 기관이 되길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주기상지청

전주기상지청은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의 눈부신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기상 예·특보 및 기상·기후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기상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보와 관측역량을 향상하여 한층 더 발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 🌩️

살인더위 피해, 갈수록 심각해져

최근 과학자들이 더위로 인한 피해를 경고하기 시작했다. 미국 상무성 산하 국립기상국(National Weather Service)에 따르면, 1986년 이후 더위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은 3,979명이다. 이는 홍수로 인해 사망한 2,599명, 토네이도로 인해 사망한 2,116명, 허리케인으로 인해 사망한 1,391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CDC)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잠이 더위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람의 몸은 수면에 접어들 때 체온이 내려가고 잠을 자는 동안 낮은 체온을 유지하지만, 더위로 인해 잠을 설칠 경우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02~2011년 사이 미국인 76만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잠을 자는 동안 온도가 높아지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선잠을 자는 사례도 증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례가 빈민층이나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기상학회에 따르면, 더위로 인한 수면 장애를 겪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능력과 사고 능력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이상행동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출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국립 보건원 산하 국립아동보건인간개발연구소는 지난 2002~2008년에 출산한 22만 30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온이 섭씨 1도가 상승할 경우 1만 명당 약 4명의 사산아를 출산했다.

‘사이언스 뉴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위를 건강을 해치는 위협(threat)으로 보기보다 귀찮음(annoyance) 정도의 가벼운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더위를 심각한 질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올 여름도 뜨거운 더위가 예고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더위는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다. 기상 관계자들은 2~3일 동안 이어지는 열파가 미래에는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 각국이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범국가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출처: sciencetimes



아마존 열대우림, 온실가스로 말라간다



지구의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마르고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의 삼림은 흉수가 질 만큼 매우 습한 환경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UCI)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최신 기후모델을 분석한 결과, 세계 강수량 변화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중요한 요인이 발견됐다. 이산화탄소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숲 자체가 이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스런 기상이변에 대해, 바다로 흡수된 열로 인해 바닷물이 데워지고 데워진 바닷물은 바람의 패턴을 바꿔 허리케인 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강수량 변화는 아마존과 열대우림, 아시아 지역의 밀집된 숲이 과잉 방출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또, 열대우림과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 사이의 상호작용은 전 열대지방에 비대칭적인 패턴의 강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나뭇잎의 기공(stomata)은 식물 성장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기 위해 열고 닫히며 수증기를 배출한다. 그러나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이 숨구멍이 넓게 열리지 않아 대기로 증발되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 미세하게 보이는 이 과정은, 열대우림 전체로 확장해 보면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증폭돼 바람의 흐름과 대양에서 오는 습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뭄화는 이러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강수는 대기의 증기가 구름이 되어 비로 내리는 현상이지만, 대서양에서 증발된 수증기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안데스 산맥의 경사면을 타고 내려 아마존 일부 지역에만 비를 내리게 된다.

한편, 연구팀은 온실가스로 인한 강수량 변화가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아마존에서 발생하는 가뭄 현상과 숲의 폐사, 그리고 다른 열대우림에서 예견되는 흉수의 증가는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의 담수, 식량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출처:sciencetimes





기상위성, 너는 내 운명



작년 6월부터 기상연구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국가기상 위성센터로 향했던 연구사로서의 첫 출근 날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물론 이전에도 과학원과 위성센터에서 약 3년 반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기에 분위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시작은 언제나 새롭고 두근거림으로 가득한 법.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연구사로 당당히 거듭날 수 있었던 내 이야기는 바로 2011년부터 시작된다.

기상위성 여름캠프를 만나다

2011년 8월,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기상 및 위성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기상위성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위성캠프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나는 생소한 기상위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다. 총 30명의 캠프 참가자들은 3박 4일 동안 합숙하며 위성 관련 이론과 실습 교육, 특강에 참여하였다.

그중에서 서애숙 전 국가기상위성센터장님의 특강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30년 전 기상청에 입사한 이후 20여 년 동안 위성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위성 관련 교재와 전문 교육과정 없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교육 위주의 차별화된 위성교육을 하고자 이번 캠프를 개최했다고 하셨다. 센터장님은 수치예보모델의 자료로 활용되고 기후변화의 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성관측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처음이라 더 특별했던 캠프를 통해, 그동안 기상청의 관측업무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상위성의 업무를 이해하게 되었고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 후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기회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났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여기 이곳에 나를 있게 한 것은 바로 '기상위성 여름캠프'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이 캠프에서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박기홍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다시 만나다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다시 만난 것은 2015년 가을이었다. 석사를 졸업한 후 과학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기상청 직제개편으로 인해 근무지를 위성센터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짧은 제주생활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나는 진천으로 오는 결정을 내렸다. 낯선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느라 결코 만만하지 않았던 연구원 생활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기상연구사로 채용될 기회를 얻었다. 분석 과장님을 비롯해 위성캠프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들과 함께 일한다는 건 나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다.

순간의 선택이 모여 인생이 된다

어느 날, 위성센터를 견학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대학 후배들이 있었다. 수줍어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기상청과 위성 업무, 사회생활 등을 물어오던 후배들의 모습은 불과 몇 년 전의 내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후배들과 대화하는 동안 나는 잠시 잊고 있던 과거의 내 모습을 다시 떠올려보게 되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먼 곳에서 와준 그들을 배웅하며, 그들에게 못다 전한 이야기를 이곳에 남기고 싶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우연한 기회 속에서 자신이 찾던 운명의 순간을 발견하게 된다면, 꼭! 놓지 않기를. 분명, 순간의 선택이 모여 인생이 될 테니까.”





보다 나은 예보관 교육을 향해

인재개발과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무렵, 조금 특별하고 중요한 교육과정 운영을 맡게 되었다. 기상청의 꽃인 예보관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예보심화과정'의 운영자가 된 것이다.



임다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예보심화과정?

예보심화과정은 올해 처음 운영되는 과정으로, 실황분석 및 사례 분석을 강화한 예보생산 실습을 통해, 예보 실전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단계적으로는 예보실 무과정이 1단계라면 예보전문과정은 2단계, 그리고 이번 예보심화과정은 3단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전에 운영하던 과정에 비해 실습 과목이 많이 배정되어 있었다.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도 실제로 교육생에게 도움이 될 실습에 대하여 인재개발과 교수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보국, 수치모델링센터 등 타 부서와도 과정을 협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바쁘게 교류하기도 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떠오르는 건 왜였을까. 한 명의 예보관이 더욱 나은 예보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호주기상청 전문 강사 Bodo의 방문

예보심화과정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호주기상청의 위성분석 및 예보관교육 전문 강사인 Bodo Ivar Zeschke(이하 Bodo)의 초청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썼다. 교육이 시작되기 전, 나는 공문서로만 만나보던 Bodo가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다. 궁금증이 풍선처럼 부풀다 터지기 직전 드디어 Bodo가 한국에 도착했다.

1일차 교육이 끝난 후 Bodo와 저녁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그토록 궁금했던 Bodo와 만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어 프리토킹에 썩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다른 분들이 계시니 나는 조용히 밥만 먹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식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밥소사! Bodo의 옆자리만 비어 있었다. 쭈뼛 쭈뼛 옆자리에 앉으니 Bodo가 '어서 너의 소개를 해봐'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의 파란 눈을 마주하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맞은편에 계시던 사무관님이 웃으며 내 소개를 대신해 주시며,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보라고 하셨다. 다행히 다정하고 인자



한 Bodo 덕분에 점차 긴장이 풀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식사 자리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래서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던가, 공무원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생 머그잔, 커피머신의 도입

최근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기상청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인재개발과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의 대체품으로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머그잔을 배부하기로 하였다. 예보심화과정의 입교식이 끝난 후 교육생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머그잔을 나눠주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교육 수료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또, 이번 과정 기간에는 강의실 옆에 커피머신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외부 커피숍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 내에서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먹을 수 있어서인지 내부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커피머신을 이용할 때 개인 컵을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문구를 붙인 것도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많은 분이 커피머신에 대해 여러모로 만족해하시는 것 같다. 커피머신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릴 때면 나 역시도 뿌듯한 마음이 든다.

비록, 내가 예보심화과정을 들은 교육생보다 한참 후배이긴 했지만 그들이 교육을 원활히 마칠 수 있게 돕는 게 나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재개발원 직원들과 그들을 본받으려 하는 내가 있기에, 기상청 예보관 교육 또한 앞으로 점차 발전하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하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삐삐삐' 아침 알람이 울려 눈을 떠보니 아내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가 나올 것 같다는 아내의 말에 나는 황급히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다. 10시간의 기다림 끝에 2.67kg의 사랑스러운 존재가 품에 들어왔다. 감격스러웠다. 아내 곁을 지키는 동안, 엄마는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생한 아내와 내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느낀 시간이었다.



라하를 만나기 전

아기를 낳기 전, 여러 육아서적을 섭렵했다. 그들이 공통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수면교육이었다. 글로 접했을 때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했다. 주변에서도 '어떻게 아기를 혼자 재우니?', '정말 교육이 가능할 것 같아?', '괜히 아기 힘들게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조언을 들었다. 의지가 꺾이던 차, 사촌 동생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는데 마침 수면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태어난 지 80일쯤부터 12시간 통잠(내리자는 잠)을 자 아기도 활기차고 부모도 훨씬 편하다며 수면교육을 강력히 추천했다. 다행히 희망의 빛이 보였다.

도전! 아기 수면교육

조리원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복귀하자, 비로소 육아 헬 게이트가(?) 열렸다.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3.2kg 이상, 생후 6주 이상, 수유 150ml 이상)있는데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아기의 성격 및 생활 특성을 파악하며 규칙적인 리듬을 잡아줘야 한다. 매일 2시간마다 밥을 먹고, 밤에는 엄마 아빠가 교대로 아기 방에서 쪽잠을 잤다. 그렇게 함께 버티며 수면교육을 시작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아내가 복직하기 전까지 수면교육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 가능한 조건이 되자마자 바로 시작했다. 규칙적인 패턴과 수유량 늘리는 것이 특히 중요했다. 수유량을 점차 늘리면서 초반 2시간이었던 수유 간격이 3시간으로 연장되고 잠자는 시간도



배철호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물속에서 느낀 자유로움, 프리다이빙

작년 12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에서 타지 생활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가족, 친구와 함께 보내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채우려니 외로움이 몰려왔다. 그래서 어떤 취미를 가져볼까 생각하던 중 오직 마스크와 스노클만 끼고 아름다운 바닷속을 수영하는 프리다이빙이 눈에 띄었다. 평소에 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프리다이빙에 도전하기로 했다.

무호흡 잠수의 자유로움

프리다이빙은 스노쿨링이나 스쿠버다이빙과 달리 무호흡으로 잠수하는 스포츠다. 산소통이나 큰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가벼운 몸으로 자유롭게 잠수할 수 있다. 해녀의 잠수와 비슷하네, 수면에서 긴장을 풀고 몸의 안정을 찾은 후, 최종 호흡을 하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프리다이빙에는 얼마나 깊은 수심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가리는 종목, 숨을 오래 참는 무호흡 시간을 측정하는 종목, 잠영처럼 무호흡 상태로 이동하는 종목 등이 정식 대회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프리다이빙가 잠수 풀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버디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자격증은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론 교육과 풀장 교육으로 딸 수 있다.

도전! 프리다이빙

12월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프리다이빙 AIDA1 자격증을 따기 위해 추위를 뚫고 올림픽 수영장으로 향했다. 이론 교육에서는 버디의 중요성, 위험한 상황, 이퀄라이징, 호흡 등 초보 프리다이빙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배운다. 이론 교육 중에 복식호흡과 이퀄라이징이 잘 되지 않아서 잠수 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까 걱정이 됐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퀄라이징(압력 평형)을 꼭 해야 한다. 물속에서는 수심 10m마다 1기압씩 수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에 있는 공간이 압력을 받아 아프지 않도록 압력을 미리 맞춰주는 것이다. 이퀄라이징을 하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수압으로 인해 귀가 매우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나도 스킨스쿠버를 체험할 때 귀가 아팠던 경험이



김서현
항공기상청 항행기상팀



있어 열심히 이퀄라이징 연습을 했다.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쿵' 내뿜으면 귀가 '뿌직'하고 뚫린다. 프리다이빙 입문 첫째 날 나의 목표는 이퀄라이징을 성공해서 5m 아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었다.

이론교육이 끝나고 5m 잠수풀로 들어갔다. 풀장은 이미 프리다이버와 스킨스쿠버로 가득했다. 막상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니 몸에 힘을 빼는 게 잘 되지 않았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몸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힘을 빼는 연습부터 하고 부이의 로프를 잡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강사님과 버디들이 모두 나를 지켜보고 있어 든든한 마음으로 조금씩 5m 아래까지 내려갔다. 덕분에 재밌는 프리다이빙 첫 도전을 마치고 AIDA1 자격증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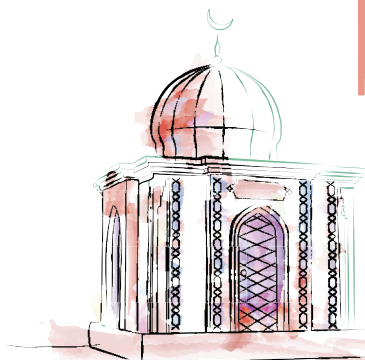


언젠가는 아름다운 바다에서

프리다이빙 교육 이후로도 송도 스포츠파크의 잠수풀에서 정기 트레이닝과 모임에 참석했다. 머리를 먼저 집어넣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덕다이빙과 물속에서 잠영하는 다이내믹 연습도 해보았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아가미가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물속에서도 매우 안정적이었다.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움직이면 아주 편안하고 온몸이 자유로워 기분이 좋았다.

처음 배웠던 이퀄라이징은 '발살바' 방법이었는데 프리다이빙에서는 '프렌젤'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프렌젤은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더 적은 힘으로 이퀄라이징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직도 잘 되지 않는다. 지금은 병아리 프리다이버로 배에 힘을 주면서 다이빙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프렌젤로 이퀄라이징이 뽕뽕 뚫려서 아름다운 바다에서 자유롭게 프리다이빙을 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 🐣

낮선 곳을 여행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영상을 다양한 매체에서 골라 볼 수 있는 시대라지만, 그래도 퇴근 후 소파에 멍하니 누워서 보는 TV가 아직은 제일 재밌다고 한다. 그렇다고들 하는데, 우리 집은 리모컨 버튼을 열심히 눌러도 공중파 채널만 반복되는 탓에 TV 보는 재미를 잊은 채 살고 있었다.

가자, 모로코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고민하며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때마침 <걸어서 세계 속으로-모로코 편>이 방송되고 있었다. 별밤이 아름다운 사하라 사막과 모로코인의 생활 모습은 우리의 신혼여행을 모로코로 이끌 만큼 매력적이었다.

모로코의 정식 명칭은 모로코 왕국이다. 입헌군주제의 나라이며, 종교는 이슬람교, 언어는 아랍어(부분적으로 프랑스어 통용)를 사용한다. 지리상 아프리카 북단에 있어 유럽과 아프리카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내가 잠시 머물렀던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는 집을 뜻하는 카사(Casa)와 흰색을 뜻하는 블랑카(Blaca)의 합성어로, '하얀 집'이라는 뜻이다. 카사블랑카는 모로코의 제1항구 도시이자 철도·도로망의 중심지여서 구경할 것이 별로 없는 도시로 꼽히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도시이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부산-인천-네델란드-모로코 노선의 연이은 환승과 대기로 많이 지쳐있었지만, 막상 모로코라는 낯선 나라에 도착하니 정신이 또렷해졌다. 철저하고 꼼꼼한 입국 심사 뒤에 만난 공항 밖의 카사블랑카는 생각보다 황량했다.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안내받고(이분은 영어가 통했다) 짐을 트렁크에 싣자마자, 택시 아저씨는 차 뚜껑 위에 놓였던 'TAXI' 표시등을 트렁크에 함께 집어넣었다. 그때부터 나의 마음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나는 짧은 영어로 목적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걸어서 세계 속으로>에서 보았던 모로코 현지인과의 유창한 대화 대신 어색한 침묵만 있을 뿐이었다.



이경희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공항에서 꽤 멀리 왔다고 생각했을 때쯤, 택시 아저씨는 우리에게 다른 차로 바꿔 탈 것을 요구했다. 그것도 도로 한 가운데서! 불안함은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는 별다른 도리가 없어 엉거주춤



다른 차로 바꿔 탄 후 달리는 차 안에서 로밍도 하고, 네비게이션도 켜고, 뒤늦게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했다. 그 와중에 성급하게 택시를 잡아탄 내 평생의 동반자에게 원망이 가득한 눈빛을 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다행히 우려와 달리 우리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낮선 모로코에 대한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길거리의 사람도, 메디나(구 시가지)를 안내해주겠다는 사람들의 호의도 반갑지 않았다.

결혼생활도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처럼

다음 날 우리는 카사블랑카의 상징이자 비이슬람 교도에도 공개되는 '햇산 2세 모스크'를 보러 나섰다. 카사블랑카 구 시가지의 북쪽 끝에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햇산 2세 모스크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이슬람 사원이다. 높이는 210m, 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곳에서 보는 노을이 특히 유명하다.

이른 아침, 햇산 2세 모스크로 가기 위해 메디나를 지나는 동안 모로코인들의 "니하오" 세례에 잠시 긴장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규모와 기하학적인 패턴이 빼곡히 새겨진 벽과 문,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모스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자 마음이 무장해제 되었다.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한 꺼풀 벗겨지는 순간이었달까.

신혼여행에서 가장 길게 머문 스페인보다 모로코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유는, 낯선 것을 대하는 부족한 내 마음 때문이다. 카사블랑카에서 있었던 택시 사건은, 알고 보니 뺏겨택시라는 빨간 택시만 시내 운행이 가능해 중간에 다른 차로 갈아탔던 것이고, 현지인들이 우리를 자꾸 쳐다본 것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적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 받았을 뿐이었다. 다른 역사, 다른 문화의 나라이니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나는 내 기준과 관점으로 해석하고 말았다. 여행자란 모름지기 편견 없이 느끼고 그 상황을 즐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말이다.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나이를 먹어 익숙해지는 것이 많아진 만큼 조금만 낯설어도 "싫다"고 해버린 것 같다. 앞으로 나의 결혼생활도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처럼, 상대를 이해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푸통푸통 타이완~!

푸통푸통 타이완~! ‘푸통푸통’이란, ‘두근두근’을 뜻하는 대만어다. 지난 3월 벚꽃 몽우리가 서서히 터지기 시작할 즈음, 나는 친구랑 함께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푸통푸통한 대만 여행을 다녀왔다.



비 오는 날의 대만

대만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때는 내 마음이 푸통푸통, 통통 튀지 않았다.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 끼어 흐렸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낮고 칙칙했기 때문이다. 대만 여행의 첫인상은 전체적으로 우중충했다. 대만은 원래 습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지만, 특히 3월은 한창 맑다가도 금방 비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날씨다. 아니나 다를까, 2박 3일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비가 와서 자유 여행객으로서는 그리 반갑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을 하면서 만난 곳곳의 울창하고 푸른 야자수, 사우나 같은 열기, 거칠어 보이지만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도시의 풍경 등은 너무나 이국적이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런 멋진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다. 그렇게 금세 대만여행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다.

대만의 맛집 투어

여행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즐거움 하나를 선택하자면 바로 음식이다. 대만 맛집 탐방을 위해 많은 블로그를 찾아보고, 대만으로 여행을 다녀온 다른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또, 대만 여행책을 빌려 어느 식당을 가면 좋을지 공부도 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에서 ‘이것만은 꼭 하고 오자’는 미션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레스토랑인 딘타이핑 본점에서 샤오롱빠오를 맛보고 즐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즐기고 오는 것이었다.



김우진
광주청 기후서비스과



샤오롱빠오는 덩섬 중의 하나로, 밀가루를 반죽해 얇게 빚은 피로 고기나 해물, 채소 등 다양한 재료를 싸서 찌먹는 음식이다. 우리는 여행 일정에 맞추다 보니 첫 끼니를 샤오롱빠오로 먹게 되었다. 단타이핑 본점은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곳이어서 그런지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사람들로 붐볐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식당 안으로 입장하자, 직원들이 한국어로 안내해주었다. 메뉴판과 선택지가 모두 한국어라서 주문하기도 매우 수월했다. 음식은 주문 후 빠르게 나왔다. 샤오롱빠오를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만두 속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육즙에 혀를 댈 것 같은 뜨거움마저 좋았다. 맛있는 건 샤오롱빠오 뿐만이 아니었다. 키키 레스토랑의 쓰촨 요리인 부추 볶음, 계란 두부튀김 요리, 버스 투어를 하면서 먹었던 광부 도시락, 꽃게 튀김, 디저트 종류의 찐주나이차, 망고 빙수, 그리고 야시장에서 맛보았던 길거리 음식들까지! 대만에서 먹은 음식은 하나같이 전부 맛있었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라 더 다양한 대만 미식을 만나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쉬울 정도였다.

대만 여행을 하면서...

우리의 여행 스타일은 꼼꼼하게 채운 스케줄로 부지런히 이곳저곳 둘러보는 것이었다. 대만의 날씨는 덥고, 습하고 또 종종 비가 쏟아졌지만, 비가 오는 순간 운치와 낭만은 더 배가 됐고 기억에도 오래 남았다. 특히 찻집에 잠시 머무르면서 비 오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던 여유로움과 휴식 시간은 정말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고 감동 받은 순간은 대만 사람들의 친절함이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돋보기를 꺼내 보여 길을 알려주던 할아버지, 공원에서 우리가 사진에 예쁘게 나오도록 찍어주셨던 아주머니, 마트에서 상냥하게 안내해주던 청년 등. 대만에서 만났던 모든 현지인이 하나같이 친절하여 대만에 대한 호감이 크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

대만의 음식, 분위기, 풍경 세 박자가 잘 어울렸던 2박 3일의 짧은 일정을 뒤로하고, 우리는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며 대만을 떠났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그곳, 대만. 돌아보니 참 좋은 시간이었다. 나중에 꼭 다시 한 번 가봐야지. 소중한 기억과 그리워할 순간이 있어서 아직도 내 마음은 푸퉁푸퉁이다. ■





도시를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지음 | 을유문화사

내가 초등학생 때 MBC 예능 프로그램에 '리브하우스'라는 인기 코너가 있었다. 거주자 맞춤형으로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같은 공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시킨 건축가가 우러러 보였다. 실제로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은 동일한 조건이어도 2,000만 원 이상 높게 거래될 만큼 공간의 값어치는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공간 전문가인 건축가가 바라보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걷고 싶은 거리

명동과 세종로를 떠올려보자. 두 장소 중 더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 거리는 명동이다.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는 가로수의 크기, 인도의 폭, 거리에 늘어선 점포의 종류 등 휴먼스케일(인간의 체격을 기준으로 한 척도) 체험이 가능한 곳이라고 한다. 작가의 분석에 의하면, 세종로는 압도적인 스케일로 상징성은 있으나 휴먼스케일 체험이 동반될만한 특징이 없다. 반면, 점포가 줄지어있는 명동은 보행자에게 그 점포를 들어갈지 말지 선택하게 하고, 걷는 속도에 맞춰 소원도가 바뀌어서 소위 '체험'을 제공한다. 아마도 명동은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체험 덕에 명동은 지루하지 않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비밀

세종로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 코엑스 광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목은 좋으나 모이는 사람이 적다는 점이다. 광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 베드로 광장에 있는 성당같이 랜드마크 건축물이 있거나 로마의 나보나 광장처럼 주변에 가게가 많아야 한다. 건축가들이 아무리 무대를 만들고 연출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곳은 죽은 공간이라고 한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성을 띠려면 목적지가 될 만한 랜드마크나 가게가 있어야 하고,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가 필요하다고 한다. 비싼 땅 위에 있는 서울의 광장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활기 있는 장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저자의 제안대로 세종로와



김세미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광화문 광장에 식당이나 노천카페 등을 줄지어 만들면 어떨까.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 같은 랜드마크는 있지만, 기념사진을 찍은 후에는 딱히 할 일이 없다. 사람들이 머무를 공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시위 장소 이상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TV를 많이 보는 이유

저자는 마당이 있는 집과 거실만 있는 집을 비교해보았다. 마당이 있는 집은 계절, 날씨,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보여준다. 이처럼 마당이 주는 다양한 이미지는 하늘이라는 무한한 천장 덕분에 마당이 있는 집을 더 넓게 느낀다고 한다. 반면, 거실은 마당에 비해 변화가 적다. 고작해야 가구 재배치나 조명 효과 정도다. 거실만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기억 속 공간의 변화가 그만큼 거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TV에 빠져든다고 한다. 보통 우리는 집에서 시간이 나면 마땅히 할 것이 없고 편하기도 해 주로 TV를 본다.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경치를 감상하고 싶어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 건물뿐이다. 책을 읽다보니, 마당이 있는 집에서 다양한 풍경을 느끼며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건축물은 조각품이 아니다

건축물은 감상만 하는 조각품이 아니기 때문에 뽐내기 위한 목적보다는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건축물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은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을 염두에 두고 만든 대표적인 예이다. 나도 예전에 경북궁에 있는 경회루 2층으로 올라가 경치를 구경한 적이 있었다. 경북궁 안에 있는 다른 건물의 지붕은 마치 파도처럼 보였고, 북악산의 전경은 한눈에 훤히 들어와 답답함이 없었다. 이런 느낌은 대청마루에만 앉아서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동대문의 DDP는 부드러운 곡면과 눈에 띄는 은빛 외관을 가졌지만, 내부 이용자에게는 답답한 공간일 수 있다고 한다. 바깥을 조망할 수 있는 창이 없기 때문이다. 창문은 조망 외에도 통풍과 햇빛을 위한 건축물의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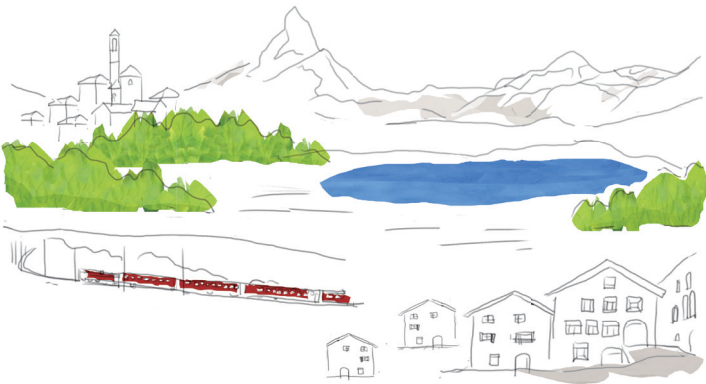
‘1만 달러 시대에는 차를 바꾸고, 2만 달러 시대에는 집을 바꾸고, 3만 달러 시대에는 가구를 바꾼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대변하듯, 요즘 백화점에서는 패션관을 줄이고 리빙관을 늘리는 추세다. 온라인에서는 집스타그램, 온라인 집들이가 인기다. 집 꾸미기와 공간에 대한 관심 큰 요즘, 건축가의 눈을 빌려 공간을 해석해보는 것은 어떨까. ■





한 편의 동화 같았던 우리의 신혼여행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몸은 힘들었지만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서 후련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을 부모님과 결혼식에 참석해준 소중한 인연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암스테르담을 경유하여 스위스에서 3박, 스페인에서 4박 머무는 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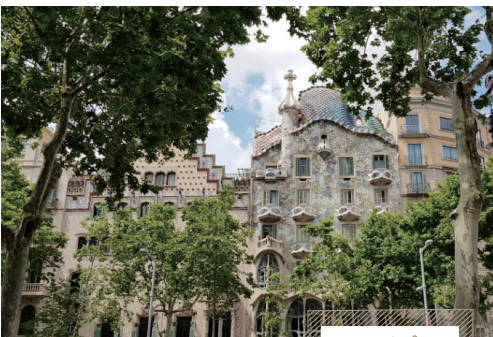


전상희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스위스 : 동화 같은 자연 풍경

스위스 취리히 항공에서 바라보는 알프스 산맥과 구름지로 둘러싸인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우연히 들렀던 열차의 환승구간 베른(스위스 수도)에서 바라보던 스위스 연방궁전과 빙하수가 흘렀던 에메랄드 빛깔의 아래강은 기대 밖의 즐거움을 주었다. 스위스에서는 주로 산악열차를 이용해 여행했다. 열차를 타고 처음 방문한 곳은 라우터브루넨의 빙하곡이었다. 산 정상에서부터 떨어지는 슈타우바흐 폭포를 볼 수 있는데, 물줄기 일부가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흩어지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라우터브루넨을 지나 만난 옹프라우요흐는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명소였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시정이 짝아 전경을 보지 못했다.

스위스에서의 마지막 여행 날은 인터라켄에서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했다. 구름 높이까지 날아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인터라켄의 풍경은 동화 속의 그림 같았다. 인터라켄을 중심으로 알프스 산맥에서 기원한 에메랄드 빛깔의 Thun 호수와 Brienz 호수가 있고, 그 사이를 아래강이 흐르고 있었다. 저 멀리 눈 덮인 산이 보이고, 그 언덕에는 스위스 전통가옥인 샬레가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이 날의 마지막 여행지는 피르스트였다. 그린덴발트에 위치한 피르스트에서는 아이거 북벽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곤돌라를 타고 정상까지 올랐다가 무동력 자전거를 이용해 내려왔다. 눈 덮인 산과 골짜기에 핀 야생화 들판, 풀을 뜯는 소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그림에서 볼 법한 광경이었다.



까사바뜨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스페인 바르셀로나 : 가우디의 도시

스페인 여행의 목적은 가우디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셀로나에서만 머물렀다. 가우디 투어를 통해 가우디의 여러 작품과 건축가로서의 삶에 대해 엿볼 수 있었는데, 그 얘기가 흥미로워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먼저, 구엘 공전은 가우디의 후원자인 구엘이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건축물을 부탁하여 지어졌다. 흑대리석과 곡선형의 검은 철장으로 장식된 구엘 공전은 카탈루냐의 상징인 불사조가 장식되어 있어 화려하면서도 기괴한 느낌이었다. 까사바뜨요는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으로 설계되어 용과 바다를 상징한다. 집은 동화 마을에 나올법한 독특한 형태인데, 건물 외벽은 물방울처럼 표현해놓았다. 특히, 건물 벽에 트랜카디스라는 가우디만의 타일 조각을 이어 붙인 기법이 눈에 띄었다. 또, 가우디는 구엘공원에서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또한, 정수시설, 평균 인체 크기를 활용한 벤치, 원근법이 고려된 기둥 등을 보며 섬세함에 가능성이 강조된 가우디만의 건축 스타일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우디의 유작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으로 향했다.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은 130년이 지난 지금도 건설 중이다. 성당은 크게 '탄생, 죽음, 최후의 심판'이라는 세 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탄생의 문을 가우디가 만들었다. 탄생의 문은 세 개 중 가장 화려하며 모서리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곡선으로만 이루어져있다. 탄생의 문은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적으로 나타냈다. 성당 내부는 나뭇가지를 형상화한 기둥과 빛이 새어나오는 천장, 그리고 녹색, 파란색, 붉은색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우러져 신성한 느낌을 주었다.

2026년에 완공 예정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을 다시 한 번 보러 오길 바라면서, 우리는 신혼여행을 마쳤다. 여행을 하는 동안 예상 밖의 즐거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가 있어 더 즐거웠고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



제주의 어떤 여름날

기다리던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제주에 내려온 지 6년 된 육지 것의 제주 여름은, 그야말로 긴 계절들을 견뎌내며 기다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라라
여행에세이 작가

제주 민박집의 여름

하루에 단 한 팀만 받는 작은 나의 민박집도 여름이 되면 도시에서 내려온 다양한 여행자들의 에너지가 채워져 저는 꽤 분주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님 조식을 준비하기 위해 나가는 정원의 텃밭에는 여름날 모기가 아주 극성이에요. 여기저기 모기와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샐러드 풀을 뜯어와 손님 아침상을 준비하고 빵을 굽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의 테이블 위에서 만나는 낯선 그들과 나는 작은 우주로 가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탐닉합니다.

“간밤에 바람이 창문을 어찌나 흔드는지 너무 무서워서 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 왜 이렇게 평화로워요?” 며칠째 장기로 머물고 있는 여행자의 제주 바람은 꽤 낯설겠지요. 어쩌면 밤바람은 낮바람보다 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 바람은 쉼쉼~ 말을 하지요. 제주에서는 모든 자연이 살아서 말을 걸고 있어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바람! 바람! 바람! 낯선 여행자에게는 생소하고, 현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제주바람! 그 바람이 훌렁 어디론가 사라진 날의 하늘은 또 얼마나 푸르고 높은지! 밟다가도 웅성하게 되는 날씨가 딱 오늘입니다.

민박집 단골손님과 여름바다

재작년에 이어 3년째, 올해도 찾아오는 단골손님은 약속한 대로 바다로 가기 위해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우리 집에 찾아왔네요. 그는 해마다 두어 달에 한 번씩 오고 있어요. 마치 기차를 타고 친구에게 오듯 우리 민박집에 자주 오는 그 손님은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친한 후배 녀석 같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에서 스노클링 장비와 수영복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날을 위해 안전한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을 했다는 손님은 과연 우리를 따라 야생적인 바다수영을 즐길 수 있을까요? 작년 여름에 방문했을 때는 수영을 잘 못 해 야생적인 우리와 바다수영을 함께 가서는 체력이 바닥나 곤혹을 치르기도 했거든요.

제주에는 바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시를 떠난 여행자들의 마음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짧은 거리의 이 섬은 이국의 정취를 닮은 듯 아닌 듯 아름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바람으로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셋박람 불민 날 우친다'는 제주 속담이 있습니다. 동풍이 불면 날이 흐리고 비 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어느새 저는 밤하늘의 별과 달과, 바람의 느낌으로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는 제주 섬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밤이면 가로등도 별로 없는 마을은 금세 어두워지지만, 그 덕에 밤하늘은 불야성인 별 잔치를 볼 수 있습니다. 진하디 진하디 푸른 밤의 별들!

여름이 점차 고조되는 시기, 더운 바람이 훅, 하고 불어올 때면 '아, 이제 바다 수영을 할 때가 되었구나'라며 지난여름 신나게 사용한 여름 용품들을 창고에서 꺼내옵니다. 스노클링 장비와 수영복, 비치타올, 돛자리와 파라솔을 챙겨 들고 바다로 나갑니다. 밭에서 막 따온 야채로 샐러드를 만들고 김밥을 만들어요. 차가운 얼음을 동동 띄운 차가운 커피도 피크닉 바구니에 넣어요. 요즘 읽고 있는 소설책과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도 두어 개 챙겨야죠. 이렇게 여름바다를 즐길 준비가 끝났군요. 우리는 관광객이 많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파라솔을 펴 하루 종일 바다에 누워 있어요. 땀이 흐르면 바다에 풍덩 들어가 바다수영을 하고 나오죠. 도시락을 먹고 음료를 들으며 책을 읽고 맥주를 마시고, 뜨거운 여름의 태양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면 하루가 끝나네요. 뭐 별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제주에서 여름을 나는 어떤 날일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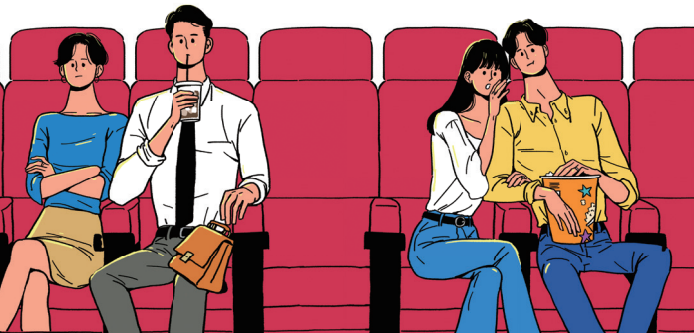
다시, 여름! 다시, 제주!

여름의 청량함이 수박 내음처럼 퍼집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뭐 계절이 계절다운 건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내일이면 나는 다시 텃밭에 나가 손님들 아침 식사를 위한 풀을 뜯고 모기에게 물리고 어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줄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열리고 땀을 흠뻑 흘리며 청소가 끝나고 나면! 그래요 신나게 또 준비를 해서 바다로 첨병첨병 들어갈 거예요. 신나는 바다수영의 계절! 우리에게 제주란 섬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안인지요. 최선을 다해 놀아야겠어요! 🍷



공포의 날씨

여름만 다가오면 공포영화에 관련한 개인적 경험 두 가지가 어김없이 떠오른다. 첫 번째는 초등학생 때 친구 집에서 비디오로 보았던 나의 첫 공포영화 <나이트메어>. 아직 순수했던 김곡 어린이에게 남겨졌던 저 창대하고도 서늘했던 트라우마여! 마침 여름이었으나 어찌나 추워지던지. 그 해 여름은 겨울이었다.



김곡
영화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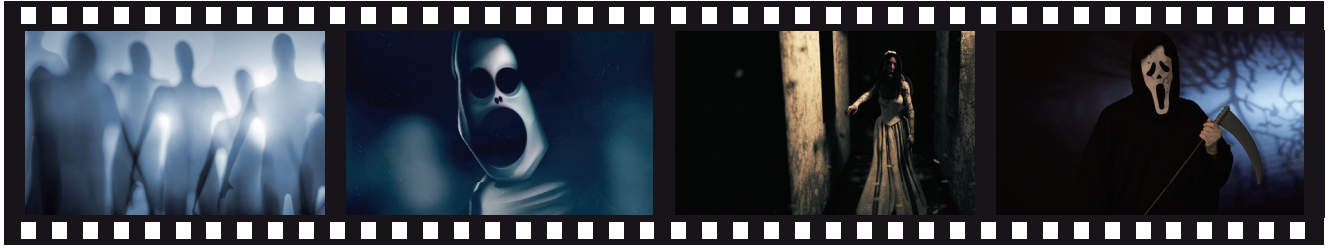
여름을 여름이라 부르지 못하고

두 번째 경험은 공포영화를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 대학생 때다. 공포영화도 다시 여름이었고, 그래 이젠 나도 나이를 먹었으니 괜찮겠지, 과감하게 표를 사고 입장. 그러나 난 방심했다. 그래. 인정한다. 난 방심했다. 극장을 나서고도 멈추지 않는 서늘한 소름에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쓴 채 되뇌고 또 되뇌었다(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불 속이다). 도대체 몇 살이나 더 먹어야 공포를 보고 서도 여름을 여름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왜 여름인데 여름이라 말을 못 해. 아아아.

여름과 공포영화의 이 영원한 유착관계를 지시하기 위해 가장 자주 쓰는 말은 '납량공포'다. '격납고'할 때 '납', '청량'할 때의 '량', '들일 납(納)' 자에 '서늘할 량(涼)' 자다. 말 그대로 '서늘함을 들임'이다. 누가 지은 말인지 기가 막하다. 공포영화의 모든 목적은, 가장 비예측적이고도 돌발적이고, 필요하다면 가장 치사하고도 악랄한 방식으로 당신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공포영화를 보면 뇌가 자극되어 혈류량을 상승시키므로 식은땀이 대방출되어 체온이 낮아지는 게 서늘함의 의학적 프로세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공포영화는 이런 과학적 분석만으로는 도저히 해명되지 못하는 근원적인 서늘함이 있다.

날씨와 귀신의 상관관계

공포영화에서의 공포는 날씨를 특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귀신은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 어둠이 깔리고 비가 와야 한다. 괴물은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고, 하다못해 나뭇잎이라도 떨어져야 한다. 기상학의 발달에 대응한 영화계 특수효과팀의 선제라고 오해해선 안 된다. 기상학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의 초기영화에서도 괴물과 귀신들은 언제나 날씨에 변화가 없으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늑대인간은 보름달이 떠야 변신한다. 처녀귀신은 안개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귀신은 더울 때도 나타난다고 논박해도 역시 소용없다. 더위는 귀신이 몰고 오는 냉기를 더더욱 강조할 뿐이니까. 즉 공포영화의 모든 괴물과 귀신들은 서늘한 공기를 타고 다닌다. 냉기는 그들의 가장 좋은 매개체이자 운송수단이며, 가면이자 실드다. 요컨대 그들은 날씨의 변화 속에 숨는다. 우리는 시시각각 너무도 미묘하게 변화하는 날씨의 흐름을 읽고 언제 어디서 귀신과 괴물들이 튀어나올지를 예측해야 한다. 매번 실패하고 말겠지만.



더위와 냉기 사이

실제로 귀신이나 괴물 등을 하나의 날씨처럼 묘사하는 작가들이 공포영화의 거장이었고, 지금까지 클래식으로 남아있는 공포영화의 명작들 모두 날씨의 극단적인 설정 속에서 태어났다. 초여름에 나만 이불을 뒤집어쓴 게 못내 억울하여 이 글을 읽는 당신께도 몇 가지 더위 브레이커 클래식 공포영화들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더운 나라 설정으로는 태국 공포영화가 있다. 태국,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후덥지근한가. 태국 공포영화는 당신이 태국여행 중 카오산 로드에서 뚝얌공을 먹으며 흘렸던 땀처럼, 당신의 온몸에 달라 붙었던 그 열기처럼 들러붙는다. 최고 추천작은 <셔터>, 그리고 <디아 1,2>다. 스포일 할까 조심스러우니, 궁금하면 찾아보시길(이 불은 대어해드리지 않습니다).

추운 쪽은 어떨까. 괴물이나 귀신이 나타나기에 더 불리한 상황은 아닐까. 아니다. 아예 눈이 펑펑 내리고 시야초차 흐려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괴물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설명 속으로 숨어들고, 공기와 하나가 되어 보이지 않게 된다. 단박에 생각나는 작품은 <사이닝>. 이만큼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슬래셔 무비도 없을 것이다. 또, 악령들을 진정 공기처럼 묘사했던 한 명의 거장을 꼽으라 하면, 그는 단연 존 카펜터다. 이미 <헬로윈>, <안개>, <매드니스>에서 악령들은 보이지 않는 환경 자체가 되어 인물들을 감싼다. 이 공포기상학의 정점은 과연 <괴물(The Thing)>이라 할 것이다. 이 영화의 설정은 아예 남극이다. 남극기지 밖이 온통 영하의 냉기와 빙원일 뿐일 때, 괴물은 어디에 숨어야 할까? 이 역시 직접 확인해보시길.

돌아보니, 내 두 번의 여름 트라우마는 결코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영화가 언제나 더 비예측적이고 돌발적이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일상과 지식에서도 그렇듯, 영화에서도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순 없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그저 이불을 뒤집어쓸 뿐이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남재철 기상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6월 7일)

남재철 기상청장과 간부들은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자 현충탑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하고 묵념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기상캐스터 간담회 개최 (6월 7일)

기상청은 기상캐스터들을 초청해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의 중요성과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외국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상업무 향상 과정 (6월 19일)

개도국 기상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상업무 향상 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우리나라의 선진 정보통신 기술 기상업무 능력을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상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철 기상청장,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 당선 (6월 20일)

남재철 기상청장이 '제70차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에서 집행이사로 당선됐다. 이번 당선은 개도국에 대한 기상기술 공여와 협력외교를 인정받은 것으로, 남재철 청장은 앞으로 세계기상기구(WMO)의 각종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Photo News



장마철 예보 점검회의 개최 (6월 26일)

남재철 청장과 본청 및 지방청 예보관들은 기상청 국가기상센터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을 보며 기상예보에 대해 점검하고 토의했다.



항공기상서비스 국회 공청회 개최 (6월 27일)

‘항행 안전을 위한 항공기상서비스 발전 방향’ 국회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자리에는 기상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항공협회, 항공사, 그 외 학계 및 소비자 모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견을 나눴다.



태풍 ‘쁘라삐룬’ 언론브리핑 시행 (7월 1일)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북상한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국가기상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시행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기상청 방문 (7월 1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방문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태풍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예보를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7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구독 소감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제시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참신한 생각으로 뽑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8월호의 단어는 <방학>입니다.

지난달 우수한 한 문장! <여름>

- 박정은, 인천
공포영화와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즐기는 것
- 최진아, 울산
첫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이는 소망

- 김태균, 부천
방학 때 외할머니 무릎에 누워 옛날 동화를 들었던 아늑한 추억
- 변순옥, 전주
치열한 다이어트의 계절
- 박무진, 경기
푸른 바다, 시원한 파도소리에 설레는 마음

QUIZ

- 1918년에 설립된 전주기상지청이 올해 맞이한 기념해는?
① 10주년 ② 30주년 ③ 50주년 ④ 100주년
- 산소통 없이 무호흡으로 깊이 잠수하는 스포츠는?
① 스쿠버다이빙 ② 스카이다이빙 ③ 프리다이빙 ④ 스노쿨링

지난달 퀴즈 정답

- ② 불록체인
- ③ 소나기

지난달 퀴즈 정답자

- 황득실(경기), 심정연(전북),
김은준(서울), 이형철(안양),
강예숙(인천)

인사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임명	'18. 6. 18.	기후과학국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	김세원	정년 퇴직	'18.6.30.	기상청	기술서기관	남영만			
		대변인실	부이사관(대변인)	김현경				행정사무관	정길운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부이사관(원장)	김영동				기상사무관	김강훈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	부이사관(과장)				연혁진	기상사무관	서광신		
		제주지방기상청	부이사관(청장)	박종서				기상사무관	노성길			
		운영지원과	기술서기관(과장)	정해정				기상연구관	이종호			
		예보국	영향예보추진팀	기술서기관(팀장)				박영연	기술서기관	남효원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기술서기관(과장)				이은정	기술서기관	김규일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과	기술서기관(과장)				이선기	기상사무관	이인성		
		기후과학국	이상기후팀	기술서기관(팀장)				박철출	기상사무관	김태수		
전보	'18. 6. 18.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술서기관(센터장)	오미림	공로 연수	'18.7.1~ '19.6.29	기상청	기술서기관	남효원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	기술서기관(과장)	신연성				기술서기관	김규일		
		지진화산국	지진정보기술팀	기술서기관(팀장)	백선균				기상사무관	이인성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기술서기관(과장)	장근일				기상사무관	김태수		
		예보국	예보분석팀	기술서기관(팀장)	이경희				기상사무관	김태수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기술서기관(과장)	김정식				기상연구관	임은하		
		국가기상위성센터	차세대위성개발팀	기술서기관(팀장)	정성훈				기상연구관	전영신		
		청장실	기술서기관	김경림	기상연구관				전영신			
		운영지원과	서기관	김중열	기상연구관				전영신			
		예보국	예보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용진				기상연구관	전영신		
승진	'18. 7. 1.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	기술서기관	김병준	전보	'18.7.1.	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	강신중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	기술서기관(팀장)	김정희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최인호
		대변인실	기상사무관	임병철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정관영	
		기후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기상사무관	남소영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	강신중
		관측정책과	방송통신사무관	김성민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정관영	
		정보통신기술과	기상사무관	고수미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	강신중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하중철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최인호
		국립기상과학원	미래전략연구팀	기상연구관(팀장)	김승범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하중철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	기상연구관	장기호				국립기상과학원	미래전략연구팀	기상연구관(팀장)	김승범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	기상연구관	장기호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	기상연구관	장기호

시끌벅적 하늘사랑

심정연 남원

'제7회 생기발랄 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작' 소식 잘 읽었습니다. 제가 약필이라 평소 캘리그래피에 관심이 많은데, 기상청이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후변화를 알릴 수 있는 자유 문구' 공모전은 특히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문구와 예쁜 캘리그래피에 의미까지 더해져 더 특별한 공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부 최우수상 '차 키를 놓는 순간 공기를 살리는 키를 잡을 수 있다'는 문구는 기상청에만 두기 아까울 정도네요. 다른 관공소나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해 기후변화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준 서울

'밥상 위를 덮친 기후변화, 제철 수산물이 사라진다?' 기사 내용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고기보다 수산물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해 시장에서 수산물을 사기 망설여질 만큼 부담이 되어 아쉽습니다. 특히, 오징어는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많아 주부들이 선호하는데, '금징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금값입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 질서까지 흔드는 만큼,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어민들은 생계를 지키고, 소비자들은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은 인천

정년 퇴직을 앞두고 계신 대전지방기상청 김태수 아버님의 기사 소식을 읽는 내내 '우리 아빠도 정년 회사를 퇴직할 때 이렇게 서운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스무 살에 입사한 김태수 아버님이 40여 년 동안 기상청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기에 기상청도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년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아버님도 그동안 한 집안의 아빠로서 그리고 기상청의 든직한 만형으로서 고생하셨으니 남은 인생은 아버님을 위한 삶을 살며 행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변순옥 전주

국립기상과학원이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했다는 반가운 소식 잘 읽었습니다. 이날 수익금은 서귀포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전액 사용했다고 하니 기증한 물건들이 뜻깊은 데 사용돼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아나바다' 장터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마음과 소통이 중요하죠. 좋은 일로 쓰인다는 생각에 다들 물건도 흔쾌히 기증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아나바다'를 열어서 다 함께 뜻깊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 노태승, <버섯구름>, 2012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 글 : 조희애

남국의 편지

이곳의 여름은 낮설어요

불꽃은 푸른빛을 내고
사람들의 얼굴은 느리게 흘러가죠

때로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지구 반대편을 상상하는 것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오래된 미래

나는 당신의 모든 시간을
천천히 읽고 싶어요

조금 위험할까요?
위험한 것은 때로 아름다워요

이곳은 슬픔도 별이 되는 곳

편지 모서리에
바다를 접어 보낼게요
마음에 든다면 방문해줘요

만약
당신이 온다면
당신이 온다면 나는

낮선 꿈은 더 이상
꾸지 않을 거예요

2018년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은
이산가족 교류의 토대입니다.

생사확인이 되면 가족을 보다 정확히 찾을 수 있고,
직접 만나는 대면상봉은 물론 화상상봉, 고향방문, 우편물 교환과 같은
여러 형태의 교류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
이산가족 전수조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사 기간

2018년 6월 11일 ~ 2018년 8월 10일

조사 내용

- ①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참여 의사
- ② 고향방문 및 영상편지 제작 희망 여부
- ③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재된 개인정보 현행화

조사 방법

1차-우편발송 2차-전화조사 3차-등기발송 4차-방문조사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람중심, 사용자 위주의 혁신적인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조사기간 **2018.7_2019.12** 16개월간
조사대상 화재안전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천개동
조사방법 소방, 건축, 전기 등 전문 조사반의 현장조사

- | | |
|---|--|
| 01
건물 안전 실태 조사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화재위험요인 종합조사 | 02
화재 위험성 평가
화재안전 점검결과 분석
위험성 평가 및 DB구축 |
| 03
대국민 정보공개
국민의 안전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 04
사람중심 화재안전기준
건축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화재안전관리시스템 개선 |